

# 원소 변환을 이용한 한글 패턴의 구조 분석

(A Syntactic Structure Analysis of Hangul Using the Primitive Transformation)

姜 賢 哲\*, 崔 東 赫\*, 李 完 柱\*, 朴 圭 泰\*

(Hyun Chul Kang, Dong Hyuk Choi, Wan Joo Lee, and Kyu Tae Park)

## 要 約

한글에서 발생하는 자소의 접촉에 의한 오인식을 해결하기 위하여, 접촉점을 중심으로 원소를 변환하여, 확장 가능한 구조를 모두 검증하고, 수락된 후보패턴에 대하여 가장 근접한 패턴 클래스로 할당하는 한글 인식방법을 제안한다.

프로그램드 배열문법을 이용하여 화소의 2차원 배열에서 입력패턴을 인식하고, PEACE(Primitive-Extraction and Attribute-Computation Embedded)파싱을 이용하여, 원소(primitive)의 추출과 속성(attribute)의 계산을 구문 분석 과정에 통합하여, 전체 시스템이 동적인 구조를 갖게하여, 1차원 스트링으로의 변환에 따르는 패턴의 변형과 부가적인 노력을 억제한다.

실제 사용에 나타나는 인쇄체 한글 1980자에 적용한 결과, 고딕체는 96.2%, 명조체는 92.0%의 인식률을 보였다.

## Abstract

In this paper, a new method of Hangul recognition is proposed to solve the problems of misrecognition owing to the contacts of FCEs (Fundamental Character Elements) in a Hangul pattern.

Structures of FCEs are represented with PAG (Programmed Array Grammar) to recognize an input pattern on 2-D. array of pels., and the unnecessary deformation of the conventional approach can be eliminated by using PEACE parsing which extracts primitives and computes attributes in the course of analyzing the structure of an input pattern.

Also, primitive transformation at contacts can afford to confirm all the possible structures of an input pattern and solve the problem of misrecognition owing to the contacts of FCEs.

The recognition rate of proposed method for printed Hangul characters shows 96.2% for 1978 Gothic-letters and 92.0% for 1920 Myng-style-letters, respectively.

## I. 서 론

한글은 24자의 기본 자소의 조합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기본 자소는 획의 조합으로 생각할 수 있다.<sup>[1]</sup>

\*正會員, 延世大學校 電子工學科  
(Dept. of Elec. Eng., Yonsei Univ.)

接受日字 : 1989年 6月 28日

궁극적으로, 한글패턴은 획의 조합으로 고려 할 수 있으며, 복잡한 패턴의 자소는 간단한 자소로부터 획을 확장함으로써 생성시킬 수 있어, 복잡한 패턴은 간단한 패턴을 내포하게 된다.

따라서, 각 자소의 접촉은 획을 확장하여 다른 자소로 인식되거나, 다른 자소의 획을 침범하게 되어 오인식의 주요한 원인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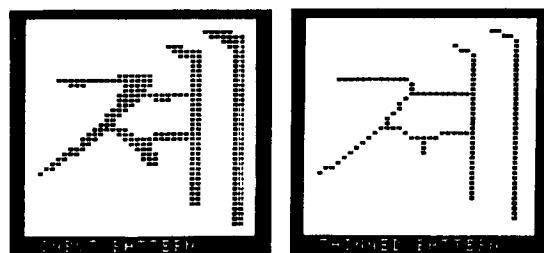


그림 1. 입력 패턴과 골격 패턴

Fig. 1. Input pattern and skeleton pattern.

그림 1은 입력패턴과 회을 추출하기 위한 전처리를 수행한 후의 골격패턴이다. 입력패턴 ‘체’는 초성과 중성의 접촉에 의하여 ‘ㄱ’이 ‘ㅈ’으로 확장하게 되어, ‘체’ 또는 ‘체’로 인식될 수 있는 모호함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자소의 접촉에 의한 오인식을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접촉점을 중심으로 확장 가능한 구조를 모두 검증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 전체 시스템이 동적인 구조를 가져야 하며, 구조적 정보외에도 수치정보, 문맥적 의미를 같이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원소변환(primitive transformation)을 이용하여 자소의 접촉을 해결하고, PEACE(Primitive-Extraction and Attribute-Computation Embedded) 과정을 이용하여, 원소의 추출과 속성의 계산을 구문분석 과정에 통합하여, 전체 시스템이 동적인 구조를 갖게한다.

## II. 한글 자소의 표현

### 1. 프로그램드 배열문법

문자는 여러 가지 변형이 존재하며, 패턴 클래스의 수가 방대하여, 구조적 인식방법(structural pattern recognition)을 이용한다.<sup>[2,3]</sup> 특히, 회의 조합으로 표현될 수 있는 한글은 회의 구조적 관계를 성형언어의 구문으로 분석하여 인식하는 구문론적 방법(syntactic approach)이 사용된다.

한글인식에 구조해석을 이용한 접근으로는 세선화된 입력패턴을 트리로 표현하여 인식하는 방법,<sup>[4]</sup> 입력패턴의 원소에 속성을 부여하여 문맥 정보를 이용하는 방법<sup>[5]</sup>이 제안되었으나, 입력패턴을 1차원적인 스트링으로 변환하여, 이를 다시 2차원적 구조로 해석하여, 스트링의 변환에서 발생하는 오류가 구문 분석에 영향을 주게되고, 스트링의 변환에 필요한 부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램드 배열문법(PAG, Programmed Array Grammar)을 이용하여, 표준패턴의 2차원적인 구조를 성형언어의 구문으로 표현하고, 이를 토대로 입력패턴의 구조를 분석한다.

PAG는 배열문법에 프로그램드 문법을 도입한 개념으로, 배열문법은 문장과 그림이 같이 존재하는 문서를 하나의 통합된 문법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개념에서 제안되었으며,<sup>[6]</sup> 성형문법을 2차원으로 확장하여 정의한다.<sup>[7]</sup>

$$Ga = (Vn, Vt, P, S, \#)$$

여기에서,  $Vn$ 은 비종단기호(nonterminal symbol)의 유한집합이고,  $Vt$ 은 종단기호(terminal symbol)의 유한집합이다.

$\#$ 는 배경기호 또는 공백기호로,  $\# \notin V$  ( $Vn \cup Vt$ )이다. 배경기호는 오토마타 이론에서의 공백기호와 유사한 개념으로 비공백기호의 확장을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무제한 확장을 방지하는 기능을 갖는다.  $S$ 는 시작기호로  $S \in Vn$ 이다. 생성규칙  $P$ 는  $\alpha \rightarrow \beta$ 의 형태를 갖는다. 여기서,  $\alpha, \beta$ 는 배열이다.  $\alpha \rightarrow \beta$ 의 생성규칙이 존재하고,  $\alpha$ 가  $\xi$ 의 부배열이고,  $\beta$ 가  $\xi$ 의 부배열이면,  $\xi$ 는 배열  $\beta$ 의 대응기호만  $\alpha$ 로 대치한  $\xi$ 와 같다. 이때,  $\xi$ 는  $\xi$ 를 생성시킨다고 하고,  $\xi \rightarrow \xi$ 로 표시한다.

배열문법에서의 생성규칙은 성형문법에서와 동일하게 4 가지 유형을 갖는다. 특히  $\alpha$ 와  $\beta$ 가 기하학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배열을 갖게 될 때, 동형 배열문법(isotonic array grammar)이라고 하며, 실제 응용에 많이 사용되는 문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2차원 배열상에서 원소의 2차원 배열을 발생시킬 수 있는 ICFAG(Isotonic Context-Free Array Grammar)를 이용하여 한글자소의 문법을 구성한다.

프로그램드 문법은 Rosenkrantz에 의하여 제안되었으며,<sup>[8]</sup> 생성규칙에 적용 순서를 부여하여 구문을 분석하며, 종래의 programming기법과 비슷한 과정으로 인식의 과정을 진행시킬 수 있으며, 문법의 추론을 쉽게 하며, 생성규칙의 문법보다 넓은 범위의 언어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강력하고, 편리한 도구를 제공한다.<sup>[9]</sup>

본 연구에서는 배열문법의 생성규칙에 순서를 부여한 PAG를 이용하여 표준 패턴의 구조를 표현하고, 이를 이용하여 입력패턴의 구조를 분석한다. PAG G는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

$$G = (Vn, Vt, P, J, S, \#)$$

여기서,  $V_n$ ,  $V_t$ ,  $S$ 는 배열문법에서의 정의와 같고,  $J$ 는 생성규칙의 label의 유한 집합으로, 각 생성규칙은 하나의 label  $r \in J$ 를 가지며,

$$(r) \alpha \rightarrow \beta \quad S(V) \rightarrow F(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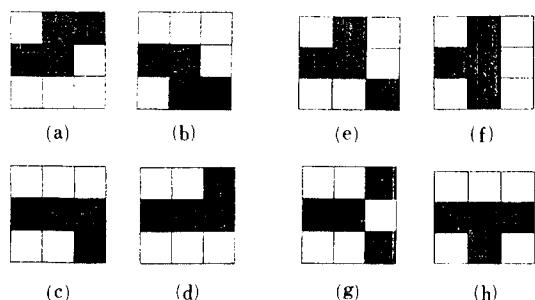
의 형태를 갖는다. 생성규칙은 배열문법의 4가지 형태중 하나를 취하며, 각 생성규칙은 두개의 분기 필드  $S(V)$ 와  $F(W)$ 를 갖는다.  $S(V)$ 는 성공분기 필드 (success go-to field)이고,  $F(W)$ 는 실패분기 필드 (failure go-to field)이며, 각 분기 필드는 label의 집합이다.

문법  $G$ 에서의 언어의 유도과정은 시작기호에 첫 번째 생성규칙을 먼저 적용한다. 현재의 문장  $\gamma$ 가 하나 이상의 부배열  $\alpha$ 를 포함하고 있을 때, 가장 원쪽의  $\alpha$ 에 생성규칙을 적용하고 다음에 적용할 생성규칙을 성공분기 필드에서 선택한다. 문장이  $\alpha$ 를 포함하고 있지 않을 때는 실패분기 필드에서 생성규칙을 선택한다. 더 이상 적용할 분기필드가 없을 때, 유도는 멈추게 된다.

## 2. 기본자소의 문법

한글은 초성, 중성, 종성의 조합 문자로 파악할 수 있으며, 가능한 조합의 수는 14,000여 가지에 이르게 된다. 또, 인쇄체의 경우, 활자체에 따라 여려가지 다양한 형태의 변형을 가지며, 필기체의 경우, 각 개인의 필기의 습관에 따라 변형이 초래되며 되어, 영문자의 경우처럼 각 문자별로 표준문법을 작성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한글의 경우, 각 자소별로 문법을 작성하여, 자소의 조합으로 문자를 인식하여야 한다.

각 자소는 획의 2차원적인 구조로 간주할 수 있기



(a), (b), (c), (d) : 수평원소, (e), (f), (g), (h) : 분기점

그림 2. 진행방향이 0일 때 원소의 정의 (후보화소가 둘인 경우)

Fig. 2. Definition of primitive with 0-direction (case of two candidates).

때문에 2차원적 구조를 표현할 수 있는 원소를 설정하여야 하며, 본 연구에서는  $3 \times 3$  부배열에서 원소를 정의하였다. 원소는 획의 방향성분을 나타내는 원소와 획의 방향의 변화를 표현하는 원소로 구분하여 설정한다. 방향성분을 나타내는 원소로는 수평선, 좌대각선, 수직선, 우대각선 성분을 나타내는 배열로 대응하는 종단기호는 a, b, c, d로 정의한다. 방향의 변화를 나타내는 원소로는 시작점, 끝점, 굴곡점 (fracture), 분기점 (bifurcation), 교차점 (cross), 끝점이 있으며, 속성값으로 방향값을 가지며, 대응 종단기호는 각각 stx, end, fr, bf, cr로 정의한다. 그림 2에 원소들의 배열 중 후보화소가 둘인 경우 (진행방향이 0)를 나타내었다.

한글의 기본자소는 이러한 원소의 구조적 관계로 표현할 수 있으며, 그림 3에 자소 ‘ㅈ’ 패턴의 구조와 문법을 나타낸다.

‘ㅈ’은 수평원소로 시작되는 수평자소이므로 수평시작점 (stx)을 탐색하여 1번 규칙을 적용하고 시작점 stx의 위치정보를 기록한다. 다음에 1번 규칙의 성공분기 필드에서 찾은 2번 규칙을 적용하여, 수평원소(a)를 인식하고 수평 원소를 탐색하다 0 방향과 6 방향으로 갈라지는 분기점 (bf, 속성값 006)을 만나게 되면, 3번 규칙을 적용하여 분기점의 속성값을 기록한다. 이어서, 4번 규칙을 적용하여 ‘ㅈ’의 머리 부분의 나머지 수평 획을 찾고, 더 이상 수평 원소가 없으면, 끝점 (end)의 위치정보를 기록하고, 분기점을 복구하고, 6번 규칙을 적용하여 수직 원소 (c)를 찾는다. 수직획을 인식하다가, 5 방향과 7 방향의 분기점 (bf, 속성값 657)을 만나면, 분기점의 속성값을 기록하고 (7번 규칙), 성공분기 필드의 8번 규칙을 적용하여, 7 방향의 우대각선 선소 (d)를 찾고 ('ㅈ'의 왼쪽 다리), 더 이상의 우대각 획이 없으면, 속성값으로 위치 정보를 기록하고 (10번 규칙), 다시 분기점으로 복귀하여 끝점 (end)을 만날 때까지 우대각 선소 (b)를 찾는다 ('ㅈ'의 오른쪽 다리).

입력패턴의 원소들의 관계가 이와 같은 구조를 만족하면 ‘ㅈ’ 패턴이라고 인식한다. 이때, 방향은 Freeman의 8 방향 code값으로 정의한다.

‘ㅈ’ 패턴은 위치에 따라 그 모습이 다르고, 문자체에 따라 변형이 초래하게 되지만, 그림 3의 표준패턴을 기준으로 변형을 흡수하게 하여, ‘ㅈ’ 패턴을 인식한다.

24자의 기본 자소의 표준패턴에 대하여 각각 문법을 작성하여 입력패턴의 구조를 분석하고, 구문분석 시 접촉점을 중심으로 원소변환을 수행하여 확장 가능한 구조를 모두 검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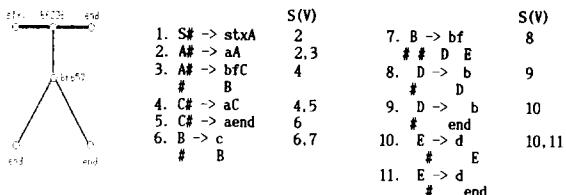


그림 3. ‘ㅈ’의 표준 패턴과 문법

Fig. 3. Reference pattern and grammar of ‘ㅈ’.

### III. 한글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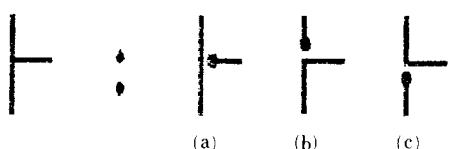
#### 1. PEACE Parsing

구문분석(syntax analysis)은 성형문법을 이용하여 입력패턴의 구조를 분석하는 과정으로, 작성된 문법으로 입력패턴을 수용할 수 있으면 구조적으로는 수락되었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PEACE parsing 기법을 도입하여 구문분석과 동시에 원소를 추출하고 속성을 계산하여, 전처리부에서 독립적으로 수행되는 원소추출, 속성계산을 한번에 처리할 수 있게 하며, 시스템이 동적 구조를 가질 수 있게 한다. parser에 속성문법(attributed grammar)을 도입하여, 정파싱거리, 위치정보와 같은 속성과 원소의 종단기호를 linked list의 형태로 보관하여, 패턴의 분류에 사용한다. 구문 분석의 결과는 list로 보관하며, 각 list는 수락된 각 자소(조성, 수직중성, 수평중성, 종성)의 코드와 속성 list로 구성한다.

#### 2. 원소변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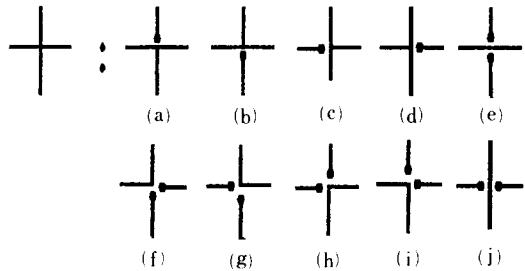
한글 인식에서 발생하게 되는 각 자소간의 접촉(contact)은 다른 자소의 패턴의 일부분을 침범하거나, 화의 확장으로 다른 패턴으로 인식하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가능한 경우의 패턴을 모두 검증하여야 하며, 자소의 접촉부를 가능한 패턴의 원소로 변환하여야 한다. 각 자소의 접촉부의 패턴을 관찰하면, 접촉점은 주로 분기점, 교차점에서 발생함을 알 수 있다.



(a) 원소와 하나의 끝점, (b), (c) 굴곡점과 하나의 끝점

그림 4. 분기점에서의 원소 변환

Fig. 4. Primitive transformation at a bifurcation.



(a), (b), (c), (d) : 분기점과 하나의 끝점

(f), (g), (h), (i) : 굴곡점과 두개의 끝점

(e), (j) : 원소와 두개의 끝점

그림 5. 교차점에서의 원소 변환

Fig. 5. Primitive transformation at a cross.

분기점은 그림 4와 같이, 하나의 끝점과 하나의 굴곡점, 또는 하나의 끝점과 원소로 변환할 수 있다. 교차점은 그림 5와 같이 하나의 끝점과 분기점, 또는 하나의 굴곡점과 끝점 둘, 또는 두 개의 끝점과 원소, 또는 두 개의 굴곡점으로 변환할 수 있으나, 한글의 경우 후자의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 3. 패턴 분류

입력패턴에서 자소의 접촉이 있으면 구문분석시 원소변환을 수행하여, 여러후보를 발생시키게 된다. 이를 최종적으로 하나의 패턴으로 분류하기 위하여, 유사성을 계산하여 입력패턴과 가장 근접한 패턴으로 분류한다. 유사성의 측도는 구문분석시 계산된 속성 값과 처리되지 않은 화소의 수를 거리로 환산하여 사용하며, 각 자소의 구조적 관계를 묘사할 수 있는 서술논리를 도입하여 한글 자소의 조합 규칙, 한글자소의 조합규칙, 한글 자소의 위치에 따른 heuristics를 이용한다.

처리되지 않은 화소의 수는 유사성 측도의 중요한 수단이 되며, 파싱에 참여하지 않은 화소의 수가 많다는 것은 입력패턴의 구문을 잘못 분석한 결과이므로, 이러한 후보패턴은 분류의 과정에서 제외시킨다.

한글의 조합에는 여러가지 규칙이 존재한다. 종성의 경우, 양성모음과 음성모음의 조합은 허용되지 않으며, 구문 분석의 과정에서 이러한 조합은 배제하며, 종성의 복사음도 허용되는 조합을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조합규칙을 위배하는 후보 패턴은 분류의 과정에서 제외시킨다.

한글패턴은 각 자소가 존재하는 위치에 따라, 각 회은 일정한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 ‘교’자의 경우 ‘교’의 수직 성분은 초성 영역 아래에만 존재한다.

이와 같은 위치 정보에 따른 heuristics를 이용하기 위하여 서술논리의 개념을 도입한다. 서술논리(predicate)는 진위를 판정하는 논리함수의 형태로 사용하며, 회이나 원소의 전후, 좌우, 상하, 내포등의 위치적 관계나, 파싱거리의 비교와 같은 의미정보(semantics)<sup>[10]</sup>를 검증할 때 사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heuristics는 글자체에 따라 다소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적용에는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

#### IV. 실험 및 결과 고찰

##### 1. 구문분석 과정

본 연구에서는 입력 문자로부터 화을 추출하기 위하여, 세선화 알고리듬을 수행하여, 64\*64 입력 문자패턴에서 폭이 1회소인 골격패턴을 추출한다.

그림 6은 간단한 패턴의 구조를 포함하고 있는 보다 복잡한 패턴의 구문분석 결과를 보인다. 패턴 ‘줄’

의 초성 ‘ㅈ’은 ‘ㄱ’과 같은 패턴을 내포하며, 중성의 ‘ㅁ’도 ‘ㄱ’이나 ‘ㄴ’을 내포한다.

초성의 분기점에서 확장 가능한 구조는 ‘ㄱ’, ‘ㅋ’, ‘ㅈ’이다. 종성 ‘ㅁ’의 경우, ‘ㄱ’으로 인식하다 만나게 되는 분기점에서 원소를 반화하여 ‘ㅁ’의 구조까지 확장한다. 결과로 ‘줄’의 경우, 파싱에 참여하지 않은 화소의 수가 10이고, ‘뚫’의 경우 24, ‘줄’의 경우 24가 되어, ‘뚫’으로 분류된다.

그림 7은 초성과 중성이 접촉된 경우이며, 구문해석의 결과, ‘제’ 또는 ‘계’로 인식된다. 초성에서 만나게 되는 두 번째 분기점에서 자소의 접촉이라 생각하고 수직원소와 끝점으로 원소 변환하여 ‘ㄱ’의 구조를 남색하여 ‘계’라고 인식하고, 분기점을 회복하여 가능한 구조인 ‘ㅈ’의 구조로 해석하여 ‘제’의 구문을 검증한다. ‘제’의 경우 거리가 10이고, ‘계’의 경우는 15가 되어, 입력 패턴은 ‘제’로 분류된다.

그림 8은 중성과 종성이 접촉된 경우이며, 중성의 구문분석시 만나는 접촉점에서 먼저 ‘ㄱ’라는 구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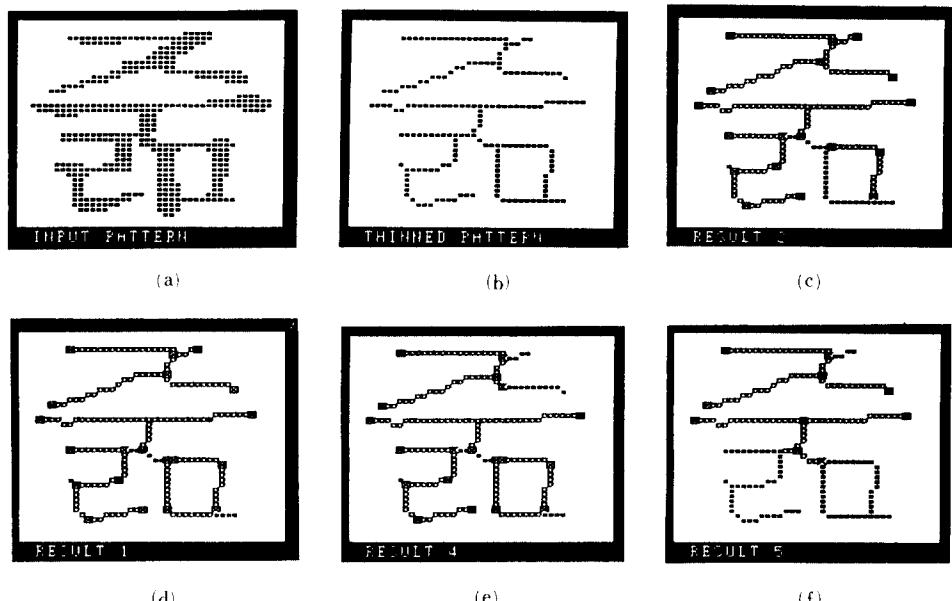


그림 6. 다른 패턴을 내재하는 패턴

- |              |              |
|--------------|--------------|
| (a) 입력 패턴    | (b) 골격 패턴    |
| (c) ‘줄’으로 인식 | (d) ‘줄’으로 인식 |
| (e) ‘뚫’으로 인식 | (f) ‘뚫’으로 인식 |

Fig. 6. Pattern which include other pattern.

- |                        |                        |
|------------------------|------------------------|
| (a) Input pattern.     | (b) Skeleton pattern.  |
| (c) Recognized as ‘줄’. | (d) Recognized as ‘줄’. |
| (e) Recognized as ‘뚫’. | (f) Recognized as ‘뚫’.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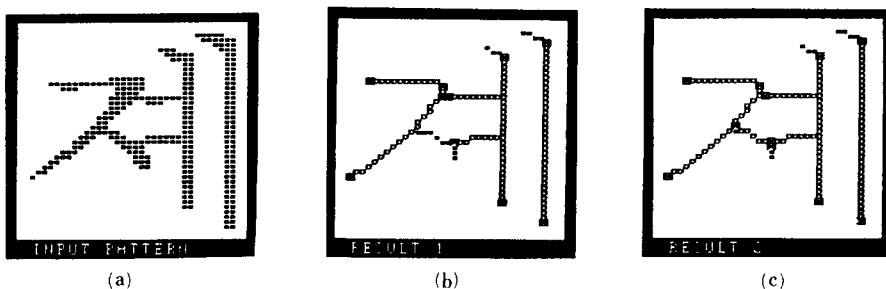


그림 7. 초성과 중성의 접촉이 있는 패턴

(a) 입력 패턴 (b) '계'로 인식 (c) '제'로 인식

Fig. 7. Pattern with contact between first consonant and vowel.

(a) Input pattern (b) Recognized as '계' (c) Recognized as '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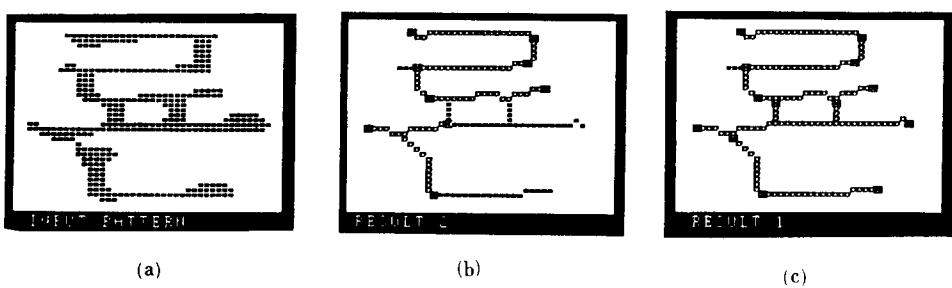


그림 8. 중성과 종성의 접촉이 있는 패턴

(a) 입력패턴 (b) '루'로 인식 (c) '론'으로 인식

Fig. 8. Pattern with contact between vowel and last consonant.

(a) Input pattern. (b) Recognized as '루'. (c) Recognized as '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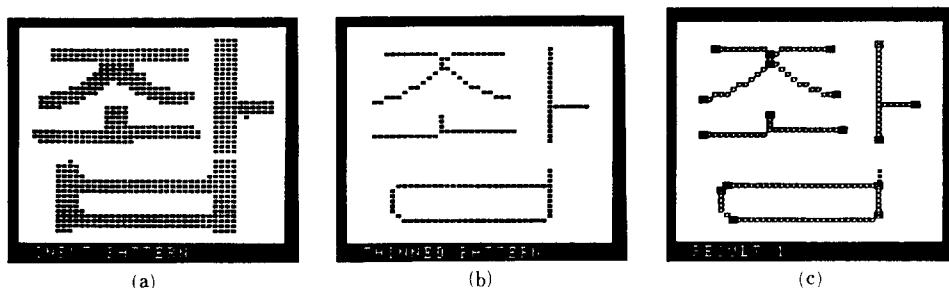


그림 9. 세선화에서의 회의 손실로 인한 오인식

(a) 입력패턴 (b) 골격패턴 (c) '존'으로 인식

Fig. 9. Misrecognition owing to the loss of stroke after thinning.

(a) Input pattern. (b) Skeleton pattern. (c) Recognized as '존'.

을 분석한다. 수평모음에서 아래 쪽의 수직 획('ㅓ' 또는 'ㅕ')이 존재할 경우, 윗 쪽의 수직 획은 더 이상 탐색하지 않아 '루'라고 해석한다. 다음 분기점을 회복하고, 종성의 접촉이라 생각하여 수평원소와 끝점으로 원소를 변환하여, '론'의 구문을 인식한다. 거리 계산의 결과, 후보 패턴 '루'와 '론'중에서 '론'

으로 인식하게 된다.

## 2. 오인식의 고찰

오인식은 주로 세선화 과정에서의 오류와 정의하기가 힘든 자소의 접촉, 또는 회의 형태의 자소의 접촉에 의하여 발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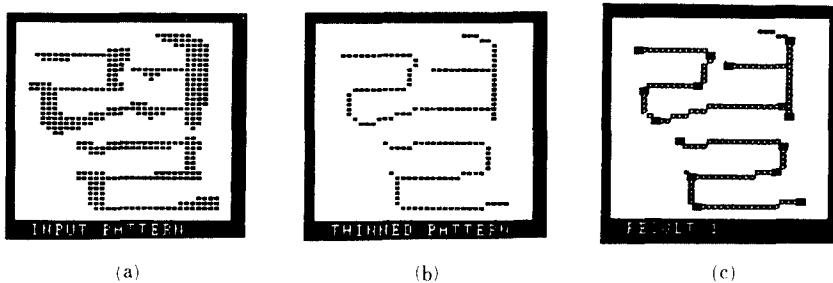


그림 10. 회의 형태의 접촉에 의한 오인식

(a) 입력 패턴 (b) 골격 패턴 (c) '렬'로 인식

Fig. 10. Misrecognition owing to contact like a stroke.

(a) Input pattern. (b) Skeleton pattern. (c) Recognized as '렬'.

그림 9는 세선화 과정에서의 오류에 의한 오인식으로 종성 'ㅂ'의 꼭지 부분의 두께가 길이에 비해 작아 획이 없어져 버려, '삽'이 '참'으로 인식된다.

본 연구에서의 자소의 접촉의 형태는 주로, 분기점이나 교차점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그러나, 그림 10처럼 분기점이나, 교차점으로 나타나지 않고, 회의 형태로 접촉되는 경우, 획이 침범당하게 되어 오인식을 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는 수직종성과 종성의 'ㅂ'이나 'ㅅ', 또는 초성의 'ㄴ'이나 'ㄷ'과 같이 마지막 회의 성분이 수평 원소이고, 'ㅏ'나 'ㅓ'와 같은 수평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수직종성에서 발생하며, 입력패턴 '렬'은 '렬'로 오인식 된다.

### 3. 인식률 고찰

입력 패턴은 조합 가능한 문자 14364자 중 실제 사용에 나타날 수 있는 패턴 1980자를 사식으로 인쇄한 글자세중 11point의 크기의 패턴을 image scanner로 입력한다. 인식률은 명조체 92.0%, 고딕체 96.2%를 나타내었다.

'같'의 종성 'ㅌ'의 장식이 초성 'ㄱ'의 획으로 확장되어 'ㅈ'으로 인식되며, 'ㄴ'이나 'ㄷ', 'ㄹ'과 같이 수평획을 포함하는 경우, 수직모음('ㅓ' 또는 'ㅗ')의 수평성분을 침범하게 된다. 'ㅎ'의 경우 머리부분과 'ㅇ'성분의 접촉은 정의하기가 어려운 형태가 되어, 오인식이 많아지게 된다.

'ㅊ'이나 'ㅋ'은 세선화의 영향으로 획이 손실되어, 변형이 많고, 'ㅂ'이나 'ㅍ'은 복잡한 형태의 접촉을 발생시켜, 오인식을 하게 된다.

종성의 오인식은 주된 원인은 'ㅏ'나 'ㅠ'와 같은 아래 쪽의 수직 성분을 포함하는 수평모음의 수직 획이나, 수직모음의 수직성분이 'ㅂ'이나, 'ㅅ'과 같은 종성의 수직성분을 침범하여 오인식을 하게 된다.

한글의 구조는 초성, 수평모음, 수직모음, 종성의 조합의 형태에 따라 6형식으로 분류하며,<sup>[11]</sup> 패턴의 복잡한 정도를 의미한다. 1, 2형식은 가장 간단한 형태로 초성과 수평 모음, 수직모음의 조합만으로 이루어지는 문자이고, 3형식은 한 문자내에 수평모음과 수직모음이 같이 존재하는 패턴이다. 4, 5, 6형식은 1, 2, 3형식에 종성이 존재하는 경우로, 6형식은 초성, 수평모음, 수직모음, 종성이 한 문자내에 모두 존재하는, 가장 복잡한 형태의 패턴이다. 표 1에 형식별 인식률을 나타내었다.

### 표 1. 형식별 인식 결과

Table 1. Recognition result according to the composition type of Hangul-character.

대상자 수	고 턱 체			명 조 체		
	실험 자수	인식 자수	인식율 (%)	실험 자수	인식 자수	인식율 (%)
F 1	85	84	98.6	85	83	97.6
F 2	138	134	98.8	138	135	97.8
F 3	98	94	95.9	98	92	98.9
F 4	480	466	97.0	447	420	93.9
F 5	930	902	96.9	911	842	92.4
F 6	247	221	89.4	247	200	81.0
계	1978	1903	96.2	1926	1772	92.0

패턴이 비교적 간단한 1, 2, 3형식이 복잡한 4, 5, 6형식보다 인식률이 높으며, 특히 종성의 수직성분이 많이 존재하는 6형식의 경우 인식률이 많이 떨어진다. 전반적으로 자소의 접촉이 덜한 고딕체가 명조체보다 나은 인식률을 기록하였으며, 문자의 조합이 복잡할수록 인식률은 떨어짐을 보이지만, 이는 자소

의 접속에서 정의되지 않은 접속점, 즉 분기점이나 교차점으로 접속하지 않을 경우에서 대부분 발생 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두께 정보를 이용하여, 회의 형태로 접속하는 자소의 분리를 수행할 수 있는 세 선화가 필요하다.

또한 명조체의 경우, 장식이 주요한 오인식의 원인이 되며, 회의 길이를 이용하여 장식임을 판단 할 수 있는 heuristics를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 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자소의 접속과, 한 패턴이 다른 패턴의 구조를 내포하는 데에서 기인하는 한글 인식의 오인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원소변환과 PEACE parsing을 이용한 한글인식 방법을 제안하였다.

접속점에서 원소변환을 수행하여, 가능한 구조를 모두 검증하여, 한글 패턴에서 발생하는 자소의 접속 문제를 해결하였고, PEACE 파싱 개념을 도입하여 구문분석과 동시에 원소를 추출하고, 속성을 계산함으로써, 종래에는 독립적으로 수행되던 원소 추출과 속성계산 과정을 통합하여, 1차원 스트링으로의 변환에서 발생하는 패턴의 채곡, 정보의 손실을 방지하고, 시스템이 동적인 구조(dynamic structure)를 갖도록 하였다.

오인식은 세선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회의 손실, 규정하기 어려운 접속점의 발생, 직선의 형태의 자소의 접속 때문이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서는 회의 두께 정보를 이용하여, 하나의 회처럼 표현될 수 있는 자소간의 접속을 분리할 수 있는 세선화 처리가 필요하며, 현재까지 진행된 결과와 한글 패턴에서 관찰되는 의미 정보(semantics)를 더 많이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생성규칙의 적용과 패턴 분류에 화률의 개념을 도입하여, 인식의 결과를 축적하여, 학습의 능력을 가질 수 있는 learning automata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 參 考 文 獻

- [1] 이주근, “한글 문자의 인식에 관한 연구(IV),” 대한전자 공학회 논문지, 제9권 제4호, 1972, pp. 197-204.
- [2] K.S. Fu, *Syntactic Pattern Recognition and Appli.*, Prentice-Hall, 1982.
- [3] T. Pavlidis, *Structural Pattern Recognition*, Springer-Verlag, 1977.
- [4] T. Agui, M. Nakajima, T.K. Kim, and E.T. Takahashi, “A method of recognition and Representation of Korean Characters by Tree Grammars,” *IEEE Trans. Pattern Analy. Machine Intell.* vol. PAMI-1, no. 3, pp. 245-251, 1979.
- [5] K.H. Lee, K.B. Eom and R.L. Kashyap, “Character recognition using attributed grammar,” IEEE Computer Society Conf. on Computer Vision and Pattern Recognition, June, Ann Arbor, 1988, pp. 418-423.
- [6] R.A. Kirsch, “Computer Interpretation of English Text and Picture Patterns,” *IEEE Trans. Elec. Comput.* vol. EC-14, pp. 363-376, 1964.
- [7] A. Rosenfeld, *Picture Languages*, Academic Press, 1979.
- [8] D.J. Rosenkrantz, “Programmed grammars and classes of formal languages,” *J. ACM*, vol. 16, no. 1, pp. 107-131, 1969.
- [9] P.H. Swain and K.S. Fu, “Stochastic programmed grammars for syntactic pattern recognition,” *Pattern Recognition*, vol. 4, pp. 83-100, 1972.
- [10] M.L. Baird and M.D. Kelly, “A paradigm for semantic picture recognition,” *Pattern recognition*, vol. 6, pp. 61-74, 1974.
- [11] 이명래, “한글 비용 접색방식을 이용한 인쇄체 한글의 인식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6. 12.

## 著者紹介



姜賢哲(正會員)

1959年 8月 21日生. 1982年 2月  
연세대학교 전자공학과 졸업.  
1984年 2月 연세대학교 대학원  
전자공학과 공학석사학위 취득.  
1989年 8月 연세대학교 대학원 전  
자공학과 공학박사학위 취득.  
주관심분야는 병렬처리구조, 패턴인식 분야임.



崔東赫(正會員)

1963年 5月 7日生. 1986年 2月  
연세대학교 전자공학과 졸업. 1988  
年 2月 연세대학교 대학원 전자  
공학과 공학석사학위 취득. 현재  
연세대학교 대학원 전자공학과 박  
사과정 재학중. 주관심분야는 병  
렬처리구조, 패턴인식 분야임.

## 李完柱(正會員)

1965年 4月生. 1987年 2月 연세대학교 전자공학과  
졸업. 1989年 8月 연세대학교 대학원 전자공학과  
공학석사학위 취득. 현재 연세대학교 대학원 전자  
공학과 박사과정 재학중. 주관심분야는 컴퓨터비전,  
패턴인식 분야임.

## 朴圭泰(正會員) 第26卷 第7號 參照

현재 연세대학교 전자공학과  
교수